

“나의 현재는 묵묵히 지원해 준 한인 커뮤니티 덕분”

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

“후손들 주류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야”

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한인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(Michelle Park Steel) OC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과 영 김(Young Kim) 전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이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. 두 사람 모두 공화당 소속 여성 정치인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오래 전부터 준비된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.

특히 미셸 박 스틸은 OC수퍼바이저 재선에 성공했으며 수퍼바이저 위원장이 되었고 여세를 몰아 연방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.

미셸 박 스틸은 지금까지 공직선거에 도전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‘무패의 신화’를 이어가고 있다. 그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한인사회이다. 그녀는 “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묵묵히 지원해 준 한인 커뮤니티의 힘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.”고 말한다. 지난 2006년 조세형평국(Board of equalization) 위원 선거에서 60.5%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해 당시 캘리포니아주 최고위 한인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인들의 큰 자랑거리였다.

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캘리포니아의 IRS(국세청)로 보면 된다. 판매세를 걷고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판결하는 ‘세금 법정’ 역할을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. 조세형평국은 4명의 선출직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3,400만 캘리포니아 인구를 감안할 때 조세 형평국 위원 한명은 85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. 미셸 박 스틸은 지도력과 능력을 유권자로부터 인정받아 조세형평국 위원직을 8년간 복무하였다.

미셸은 지난 2006년 아놀드 슈워제베거 주지사의 선거 위원회 명예의장을 맡은 바 있다. 지금까지 알려진 미셸의 이력을 보면 그가 미국 주류정치계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.

미셸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2년 LA 4·29 폭동이였다. 미셸은 LA 폭동이 일어난 후 주류 정치인들이 한인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인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이는 한인들 잘못이 아니라 약탈하거



▲ 사진=미셸 박 하원의원 선거 장면 / 출처=의회 공식 웹사이트

나 불 지르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항변했다. 미셸은 겁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, 때마침 1993년 LA 시장 선거에 리차드 리오단이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왔으며, 리오단이 시장에 당선된 후 LA 소방국 커미셔너로 임명 받아 정치계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.

조세형평국 위원에 출마하게 된 것도 캘리포니아 한인의 30% 이상이 소규모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도전했다. 그녀는 조세형평국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규모 업소 납세자들로부터 공약을 받은 4,200만 달러를 5,500 업체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, 한 때는 ‘iTax’ 라고 음악, 영화 등을 다운로드하는 것에도 세금을 붙이지는 안이 나왔을 때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서 납세자들을 돕고 세금이 안 오르게 하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미셸 박 스틸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, ‘Korean American’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. “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, 더 크게 미국 정치를 봐야 한다. 왜냐하면 우리 2세들이 여기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. 우리는 2, 3세들이 미국 주류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.” 라고 역설했다.

제117대 연방 의회가 지난 3일 출범한 가운데 미셸 박 스틸 의원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. 미셸 박 스틸은 “미국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나라”라며 “이것이 바로 나의 아메리칸 드림”이라고 밝혔다. 그는 또 “연방 의회에서 나의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는 것에 흥분이 되고 겸손해진다.”면서 “이제 일하러 가자.”라며 연방하원의원으로 서의 각오를 다졌다.



미셸 박 스틸 약력

- 1955년 6월생
- 페퍼다인 대학 졸업
- USC MBA
- 1993년 LA시 소방국 커미셔너
- 2001년 부시 대통령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
-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
- 2014년 오렌지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
-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
- 2021년 캘리포니아 제 48지구 연방하원의원

(사진=미셸 박 공식 Flickr 계정)



◀ 사진=미셸 박 / 출처=미셸 박 공식 Flickr 계정